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북한출간물 허구 서평 통해 조명 - 문공부, 이념도서 등 백여종 비평·해제작업/주체사상 형성과정·혁명론 등 비판/연내 4권 목표...북한인식 시리즈도 계획(조선일보 8월5일 金泰翼기자)
- 「한국문집총간」20책 발간-민족문화추진회 1차분 완성/정국인 등 조선시대 문인 93명 저술 수록/철저한 고증 거쳐 국학연구에 기여 클 듯(내외경제신문 8월5일)
- 어린이 독서행태 변화-아동문학가 曹大鉉씨 밝혀/호흡 짝아지고 입체적 파악/아동물은 교훈주입 탈피를(한국경제신문 8월6일)
- 태아~아동기 바른 양육법 소개-샘터사 「육아교육신서」시리즈 35권 출간/구체적 실례 제시...독자 큰 호응/80년부터 시작 100권까지 내용을 예정(매일경제신문 8월7일 李奉滿기자)
- 잡지 닳은 학술지 봄-진보학술단체들 '학문대중화' 앞장/「법과 사회」「역사비평」등 10여종/거의 젊은층 주축 폐쇄적 학계에 새바람(동아일보 8월7일 金次洙기자)
- 「붉은 불사조」한·미서 동시출간-제2의 한국전쟁 가상 시나리오/퇴역 美해군장교가 써...「이달의 책」으로 뽑히기도(중앙일보 8월7일 朴峻瑩특과원)
- “원작승인 거부해도 저작권 포기 아니다”-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, 소설「졸병시대」연극·영화화색에 심의결정(중앙일보 8월8일 李憲益기자)
- 정세분석 전문지 창간 활발-연구단체서 기획·편집...학술운동 새 흐름 이뤄(한겨레신문 8월8일)
- “과학도서 잘 팔린다”-직장인·대학생층서 꾸준히 인기어어(한국경제신문 8월9일 李汀桓기자)
- 엄마·아빠·딸 「3화음 시집」 화제-文熙子씨 「동화가는 길」출간/아내의 시에 남편 해설...딸 편집(조선일보 8월9일 崔球植기자)
- 이념비판간행물 「물랑공세」/문공부·연구소·출판사서 퍼내...운동

- 권분석도/정부가 사들여 공공기관 무료배포 등 간접지원(한겨레신문 8월10일 金영철기자)
- 문학무크지 문단에 젊은 피 輸血-시인 원재길씨 「문학예술」8월호서 실태분석/80년 첫선 후 26종으로 늘어...지방서 13종 발간(경향신문 8월10일 孫東佑기자)
- 미술잡지 춘추전국시대-모두 7종 간행...시장확보 안간힘/“정보·비평의 폭 넓어졌다”호평/사생 활폭로 등 흥미성 기사엔 비난도(서울신문 8월10일 李憲淑기자)
- 필화작가 南廷賢씨 20년 침묵 깨뜨려/가상적 통일 주제 장편 「聖地」 집필 착수(국민일보 8월10일 朴太堅기자)
- 문공부 발간 「북한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」-전4권...문제점조명 그릇된 인식 불식(서울경제신문 8월10일)
- “쉽고 재미있는 수학·과학책 많이 나온다”/문답풀이·삽화로 ‘골치 아프다’ 고정관념 벗어/독자 반응 좋아 대중화 큰 몫...번역물 많아 흠(한겨레신문 8월11일 신연숙기자)
- 경제소설 새 장르로 인기-기업·은행 등 중간관리자의 삶을 소재/사회의 단면과 구조적 문제 조명/체험적 작품 주중, 많은 공감 받아(한국경제신문 8월11일 朴聖姬기자)
- 출판편집대행사들 외길 추구/미술·사전·사보제작 등 전문화/오랜 실무경험바탕 독특한 기술개발(중앙경제신문 8월11일 金龍善기자)
- 서점가 「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」 열풍-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·학부모의 삶 묘사/베스트셀러 1위(중앙일보 8월12일 李京哲기자)
- 월북작가 저작권 ‘상속인정’/「두만강」 무단출판에 중지판결/북의 작품도 법률로 보호돼야(서울경제신문 8월13일 姜升遠기자)
- 근·현대 실증적 연구의 초석-출판계 2대役事 마무리/한길사, 「해방전후사의 인식」4·5·6권 완간/79년 첫 발간 이후 지식층에 꾸준한 인기/아세아문화사 「조선총독부 官報」 색인집 간행/13년 조사...영인본발간 4년만의 쾌거(세계일보 8월13일 趙佑石기자)
- 출판계 참가준비 부산-올가을 모스크바·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 전시회/모스크바, 첫 참가...시장

- 진출가능성 탐색/프랑크푸르트, 삼성당 등 4社 단독부스 마련(중앙일보 8월14일 李憲益기자)
- 진단학회 창설 한국사학 개척-斗溪 李丙燾박사의 업적/「한국사」전7권 완성 역사학에 큰 획/만연 「儒學史」집필...노익장 과시(중앙일보 8월14일)
- 해외신간 국내동시출판 급증-국제저작권조약 가입후 한국신용 높아져/「시간의 모래밭」 「붉은 불사조」 등 7편 선 배/에이전트 통해 계약...대부분이 베스트셀러화(경향신문 8월14일 安健熾기자)
- 통일다룬 신간 「3종3색」 눈길-대학교수 3인 잇따라 퍼내/「전환기의 통일논쟁」 「통일의 그날은 꼭 온다」 「분단국통일의 재인식」(동아일보 8월15일 梁泳彩기자)
- 식민·분단시대 사상적 갈등 재조명-蔡萬植·金八峰 문학전집 최근 완간/시대변화 따른 지식인의 좌절 평가/민족문학 나아가 길에 이정표제시(중앙일보 8월16일 李京哲기자)
- “시사경제·경영도서 쏟아진다”-「무역전쟁」「페레스트로이카」 등 잇단 출간/한국발전 세계주목 반영 정보제공 역할(매일경제신문 8월16일 李奉滿기자)
- “아동문학 시각다양화 서두를 때”-현주소점점 개선방향 세미나 발표내용/홍미위주 도서 탈피 위해선 장기계획 필요(스포츠서울 8월16일 오정국기자)
- 소련현대시 본격성략-도서출판 열린책들 시리즈 4권 퍼내/마야코프스키 「레닌」 완역 수록(스포츠서울 8월16일 朴찬기자)
- 문학세계 재조명 활발/八峰 작품 집대성한 문학전집 나와/미발표작을 실은 「박영희연구」도(중앙경제신문 8월16일)
- “건강서적 불티나게 팔린다”-당뇨치료·단식법 등 1년 동안 50여종 나와/중년층에 인기...전문지식 없어도 읽기 쉬워(한겨레신문 8월16일 박근애기자)
- “앞날이 궁금하다”-미래학서적 쏟아져/국내는 학회간행물뿐...전문가 연구서 나와야(내외경제신문 8월16일 南眞祐기자)
- “지역도서실 뿌리내린다”-전국 곳곳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인기/대부분 회원제운영...책 무료로 빌려주기도/퇴폐·사치풍조 몰아내는 사회운동에도 한몫(한겨레신문 8월17일 신연숙기자)

- 재미작가 金原原 「꽃을 든 남자」 퍼내 주목/교포들 ‘여성·가족문제’ 날날이(한국경제신문 8월17일 朴聖姬기자)
- “친일인사들 해방후 反동일세력화”-「親日派叢史」 집필 林鍾國씨/모두 10권...「필생작업」 하루 10시간씩 강행/4까지 조사...「政財界 지도급 변신 거듭」(한국일보 8월17일 徐華淑기자)
- 사보, 기업문화 꽃으로 자리잡아/매년 예산늘려...편집방향 다양/사원교육·노사화합에 큰 역할(매일경제신문 8월18일 李忠建기자)
- 독서소비자운동에 새물결-「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」 제2의 출발/출판·여성단체 등 범연합체 결성/범람하는 퇴폐출판물에 공동대처(일간스포츠 8월18일)
- 늘어나는 저작권침해분쟁-최근 사례와 법원의 판례/월북작가 작품 무단출판에 제재/영어원서 복제한 업자 첫 실행선고도(중앙경제신문 8월18일 金龍善기자)
- 日帝잔학상 고발 2권의 책 출간-「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왔다」「그날 이후」(서울신문 8월18일 黃圭鎬기자)
- 우리도서 공산권보급 본격채비/내달 모스크바박람회 대표 첫과전/韓語版 등 571종 출품·세미나·수출상담도(경향신문 8월21일 安健熾기자)
- 「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」 발족/주간신문협회 등 12개단체 결속/음란·저속출판물에 공동대처/조직개편, 이사회·윤리심의 위원회 설치(국민일보 8월21일)
- 사보창간리서/노사분규물결속 급증 「화합의 장」으로/현재 700종...내용충실, 상업잡지 못지않아(국민일보 8월21일 朴太堅기자)
- 인쇄수출진흥협의회 내달 출범/업체대표50명 모여 발기인대회 열어/수출지원책·정보교환 등 창구역할 맡아(서울경제신문 8월22일)
- 북한원전 민속·지리지 출간 봄/「자랑스런 민속음식」「금강산」 등/기초철학·문학서 일색에 식상(한국일보 8월22일 徐華淑기자)
- 외국자본 상륙움직임에 출판계 ‘비상’/미·일 대형社 국내합작대상 모색/출협, 「금지」 법개정 서명운동(서울경제신문 8월22일 申正燮기자)
- 佛소설 세계시장서 외면/“읽기에 지루하고 내용 난해”/英譯의뢰

- 적고 국내출판도 한산(중앙일보 8월22일 李京哲기자)
- “중고관련 서적·잡지 쏟아져 나온다”-敎人用차원 넘어 문서선교·홍보경쟁/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207종...2년간 62%나 늘어/단행본도 급신장...쉽게 풀이쓴 교양물·만화인기(세계일보 8월22일 申敏亨기자)
- 월북학자의 회귀저서복간-출판인 尹炯斗씨 인터뷰/“해방공간 등 학문축적 엄청난”/“북한서도 死藏...출간 서둘러”(한국일보 8월22일)
- 책 안방쇼팽 인기/대형서점들 컴퓨터서비스 경쟁/책값 후불 카드 결제 선물대행도(동아일보 8월22일 梁泳彩기자)
- “잡지계 창·복간 바람 계속 분다”/한달 평균 70여종 발행신청/경제·시사교양 등 색깔 다양/광고·판매경쟁서 밀려 일부 폐간도...질적 전문화 정착돼야(내외경제신문 8월23일 南眞祐기자)
- 20년대 프로문학의 쌍벽 八峰·懷月 재조명 본격화-60년만에 두권의 연구집 등 동시출간(세계일보 8월23일)
- 소형화집 잇단 출간-미술대중화 한몫/작가총서시리즈 등 애호가에 대량보급/최근경향 소개, 자신의 작품해설 눈길(스포츠서울 8월24일 金龍善기자)
- 報告문학 창작리서-노사분규진상·미전향좌익수 수감실태기록/백시종 「왕과 먹이사슬」, 김하기 「살아있는 무덤」 등(국민일보 8월24일 朴太堅기자)
- 분단체제 ‘위기와 평화’ 2개의 극단신화 논박-「한반도의 전쟁과 평화」 출간 河英善교수/남북한과 주변열강 입체적 분석(조선일보 8월25일 崔球植기자)
- 蔡萬植전집 완간-소설·희곡 등 324편 10권수속...표기현대화(조선일보 8월25일)
- 출판물 통한 이념논쟁 활발/이념서적 대중화노력 문고판까지 나와/정부 다양한 비판서평집 퍼내 맞불작전(중앙경제신문 8월25일)
- 등산관련서적 출판 봄/국내저술·번역서 등 70여종/인간관계극복 그린 등반기 주류/평화·수문 등 전문출판사도 10여개(서울경제신문 8월25일 申正燮기자)